

광주·전남 학생들 장애학생체전서 값진 결실

전남 금 16·은 35·동 23개 획득
육상 높이뛰기 조정인 4연패
광주 금 12·은 16·동 10개 수확
역도 송은결 대회 3관왕 등극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배드민턴 종목에서 금 3개와 은 2개, 동 1개 등 총 6개 메달을 획득하며 종목 종합 3위에 오른 광주 배드민턴 선수단. **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전남 장애인 학생들이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값진 결실을 맺었다.

전남 장애인 학생 선수단은 지난 14~17일 전남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육상 등 11개 종목에 295명(선수 154·임원 및 지도자 141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 16개, 은 35개, 동 23개 등 총 7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지난 17회 대회(금 13·은 21·동 23개)에 비해 메달 17개를 더 많이 수확한 성과다.

육상 여자 100mB T11·200mB T11(시각·중등부)의 노연희(은광학교)와 여자 800m·1500m T20(지적·중등부)의 국사랑(소림학교)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조정인(목포인성학교)은 남자 높이뛰기 T20(초·중)에서 1m25를 기록,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이승훈(덕수학교)·장제민·김현서(이상 함평영화학교)·조정인은 남자 100mx4계주 T20(중)에서 1분03초48로 금빛 질주를 펼쳤다.

보치아 종목에서는 여자 개인전 BC2(중) 강재은(무안몽탄중)과 남자 개인전 BC1(고) 김유근(남악고), 남자 개인전 BC2(고) 유지성(여수석유화학교)이 금메달을 따냈다.

술린 종목에서는 여자 개인전(초·중·고)의 박유나(나주이화학교)와 남자 개인전(고)의 김경모(전남과학기술고), 혼성단체전(3인조) SL-6(고)의 한지영(나주상고)·강민석(순천공고)·허수정·

노찬·공현아(이상 전남기술과학고)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e스포츠 종목의 안다울(서창초·혼성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볼링(초)), 정성현(덕수학교·혼성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테니스), 김동훈(목포인성학교·혼성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테니스), 수영 종목의 김수현(구례여중·여자 평영 100m S14(초·중))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남 선전에 힘을 보탤다.

조정 종목의 김상훈, 김상은, 김상희 3남매는 혼성 500m 타임레이스 단체전에 출전(엔트리는 3명, 경기는 김상훈, 김상희 출전)해 1분58초00으로 은메달을 따내며 눈길을 끌었다.

광주 장애학생 선수단은 9개 종목에 106명(선수 61·임원 45명)을 파견해 금 12개, 은 16개, 동 10개 등 총 38개의 메달을 따냈다. 이는 지난 17회 대회(금 9·은 16·동 20개) 보다 총 메달 갯수는 7개 줄었지만 금메달 갯수는 3개 늘어난 수치다.

역도 송은결(광주선광학교 고1)이 남자 +70kg급 OPEN 초등부 데드리프트, 스쿼트, 파워리프트 종합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해 3관왕에 올랐다.

조정 문가영(광주자연과학고 2)은 여자 1000m 타임레이스 II OPEN 고등부와 혼성 1000m 타임레이스(단체전) II OPEN 고등부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 2관왕을 차지했다.

광주 배드민턴은 금 3개와 은 2개, 동 1개 등 총 6개 메달을 획득하며 종목 종합 3위에 올랐다. 송형우(선광학교 고1)가 남자 단식 IDD 중/고등부와 혼성 복식 IDD 중/고등부에서 각각 1위를 차지,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송후(월봉중 3)는 남자 단식 SL3(초·중·고)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시연(영천중 3)이 여자 단식 IDD와 혼성 복식 IDD에서 각각 은메달을 차지했다. 정다운(선광학교 고2)이 여자 단식 IDD 동메달을 획득했다.

탁구 채재민(남자 단식 클래스11(초·중)·금호중 3)과 김민찬(남자 단식 DF(초·중)·송정초 6), 박정효(여자 단식 클래스11(초·중)·월봉중 3)도 금메달을 획득, 광주 선수단의 선전에 기여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제19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성료

16~17일 완도서 2300여명 참가
게이트볼 등 9개 종목서 열전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체육 한마당인 '제19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이 지난 16~17일 완도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축전에는 개최지 완도군을 비롯한 22개 시·군 선수단과 경북 어르신생활체육 선수단 등 총 23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했다.

어르신들은 게이트볼, 궁도,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산악, 소프트테니스, 체조, 탁구, 파크골프 등 총 9개의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경북어르신생활체육선수단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탁구, 배드민턴, 소프트테니스, 파크골프 등 6개 종목에서 전남선수단과 화합과 우정의 교류를 가졌다.

대회 결과 게이트볼은 구레가 우승을 거머쥐었고 2위 완도, 3위 담양·여수가 차지했다.

궁도는 완도·고흥·신안이, 그라운드골프는 광양·여수·해남이, 산악은 강진·광양·해남이 각각 1위, 2위, 3위에 올랐다.

소프트테니스는 담양A가 우승을, 해남A가 2위, 광양A와 여수A가 3위를 차지했다.

배드민턴은 목포(1위), 여수(2위), 순천·영암(3위), 체조는 담양(1위), 보성(2위), 화순(3위), 탁구는 광양(1위) 구레(2위) 순천·화순(3위), 파크골프는 완도(1위), 함평(2위), 영광(3위)이 각각 입상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은 물론, 영·호남이 하나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남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제20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은 영광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광주시체육회, '행복나눔스포츠교실' 최우수단체 선정

광주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행복나눔스포츠교실' 공모사업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전국 최다 예산인 1억3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행복나눔스포츠교실은 소외계층 및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환경 조성 과 다양한 종목 프로그램 제공으로 스포츠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청소년들의 스포츠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및 64개 중앙종목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9개 시도체육회 및 22개 중앙종목단체 중 최우수단체로 최종 선정돼 총 1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광주시체육회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에 걸쳐 관내 다문화 및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풋살·배구·빙상·볼링·줄넘기·양궁 7개 종목 총 11개 종목 교실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개소별 책임강사 및 보조강사를 배치하고 프로그램 진행 경기용품, 유니폼 등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주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및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광주체육의 여건 조성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민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 공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KIA타이거즈가 19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다이노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6차전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시리즈 스윙을 달성했다.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8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원정 경기에서 4-2 승리를 거둔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KIA, NC 원정 3연전 쓸어 담았다

2-1 신승... '4연승' 선두 수성



KIA타이거즈가 NC 다이노스와 원정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단독 선두를 지켰다. 선발 자원이 이의리와 윌 크로우가 부상 이탈한 가운데 대체 선발과 불펜진의 호투로 일군 값진 성과였다.

KIA는 19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6차전에서 2-1 신승을 거뒀다. 앞서 18일 5차전에서 7-2, 17일 4차전에서 7-4 승리를 거뒀던 KIA는 3연전을 모두 승리했다.

KIA는 8회까지 마운드 호투 속에 1-1로 팽팽한 접전을 펼치다 마지막 한 방을 터트리며 승리했다. 1-1로 맞선 9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우성이 이용찬

의 3구째 134km 슬라이더를 공략해 좌월 홈런을 터트리며 짜릿한 승리를 만끽했다.

이번 NC전 싹쓸이승으로 단독 선두 수성에도 성공했다. KIA는 지난 14~16일 두산과 홈 주중 3연전에서 1승 1무 1패에 그치며 NC에 1경기 차 추격을 허용했으나 이번 3연전을 쓸어 담으며 올 시즌 29승 1무 16패(승률 0.644)로 2위 삼성(26승 1무 19패·승률 0.578)과 격차를 3경기로 벌렸다.

KIA가 NC와 주말 원정 3연전을 스윙으로 연결할 수 있었던 데는 대체 선발자들의 공이 컸다. 17일 4차전에 선발 등판한 김건국이 햄스트링 뭉침 증세로 1이닝만 소화한 뒤 조기 강판됐지만 김사윤이 3이닝 1실점(비자책)으로 마운드를 지켰다.

18일 5차전에서는 6선발로 활약 중인

황동하가 5이닝 2실점으로 제 몫을 했다. 직전 2경기에서 5이닝을 3실점 이하로 막고도 승리를 챙기지 못하는 불운이 있었지만 이를 딛고 프로 데뷔 첫 승을 신고했다.

19일 6차전에서는 만형 양현종의 헌신이 돋보였다. 양현종은 무더운 날씨 속 2회 등판에 나섰지만 6이닝 동안 90구만 던지는 노련한 투구로 NC 타선을 1실점으로 틀어막았다.

대체 선발진의 호투 속에 불펜 투수진도 모처럼 탄탄한 모습을 보였다. 장현식과 최지민, 정해영 등 필승조가 2이닝 씩을 무실점으로 책임졌고 이준영과 전상현, 광도규도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김도현과 윤중현도 각각 2이닝과 1이닝에서 1실점 씩을 기록하며 힘을 보탤다.

한규빈 기자